Yeosu
Web Contents

2024년 10월 12일 16시 52분

목차

목차 2
여자 3
마을유래(□□) 3
지명유래(□□□□) 3
대동[마을] 3
송여자(송여자도)[마을] 3
담배밭골[골] 3
삼밭골[골] 3
샘북넘[골] 3
샘김이[골] 4
외막골(□□□)[골] 4
큰골(□□)[골] 4
붉은독[너설] 4
개름길(개렴길)[길] 4
새지끝[곶] 4
할박끝[곶] 4
벗등[등] 4
동뫼[등] 4
질고지[목] 4
활꼬발[모래톱] 4
각시바위[바위] 4
탕전바위[바위] 4
대여자도[섬] 5
소여자도[섬] 5
죽도(대강죽도, 대섬)[섬] 5
매물섬[섬] 5
목섬[섬] 5
동도(둥글도)[섬] 5
납계도(납닭도)[섬] 5
간서(샛여간도)[여] 5
검등여[여] 5
애기남태[터] 5

규포	낭도	둔병	모전	백야
사도	상화	신흥	여산	여석
여자	월항	월호	자봉	적금
제도	조발	하화	호령	화백
화산				

마을유래(☒☒)

임진왜란 당시 승주군 낙안면 선소에서 성명미상의 남원방씨가 처음 입도하여 마파마을에서 살았으며, 그 후 초계최씨가 풍량을 피하기 위하여 대동마을에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. 그 후 김해김씨(☒☒☒☒), 광산김씨(☒☒☒☒), 김녕김씨(☒☒☒☒) 등이 현재 살고 있으며, 최초로 입도한 남원방씨(☒☒☒☒), 초계최씨(☒☒☒☒)의 후손들도 살고 있다.

지명유래(☒☒☒☒)

여자 대동마을 섬들의 배열이 공중에서 보면 너여(☒)자형이라 여(☒)자와 육지와 거리가 너무나 먼 거리라 교통이 불편하여 모든 생활수단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뜻으로 너여(☒) 스스로자(☒)를 써 여자라 하였다 하며 소나무가 많다 하여 부른 송여자라는 섬과 합하여 여자리라는 법정리를 구성하고 있다. 일명 여자도라 하였다. 여자만에 길게 남북으로 형성되어 여자도의 북쪽에 위치한 큰 마을이다.

대동[마을]

마파지 여자리도 남쪽에 있는 마을, 지형이 말머리 형상을 하고 있으며 마을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 여름철이면 마파람(남풍)이 많이 부는 마을이라 하여 마파지라 부름.

송여자(송여자도)[마을]

송여자도에 위치한 마을. 섬에 소나무 숲이 많이 있고 형상이 소와 같다하여 소여자라 한 대도 있었다.

담배밭골[골]

송여자마을 동쪽에 우물이 있는 골짜기. 담배가 잘 재배되는 지역.

삼밭골[골]

마파지마을 등 넘어 대동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골짜기. 옛날 길쌈하는 삼(마)을 많이 재배하였다고 함.

샘북넘[골]

여자리 대동마을 학교 넘어 해변가 골짜기. 샘북쪽 너머란 지명을 줄인 말로 느껴지며 이 바닷가에서 옛날 10명이 들어도 못 드는 바위를 최장군이란 사람이 들었다는 전설이 있음.

샘김이[골]

대동마을 재 넘어 마파지를 가는 길 주변의 골짜기 옛날에 큰 샘이 있었으며 지금 이생은 집수정으로 변하여 있음.

외막골(□□□)[골]

송여자 서쪽에 있는 골짜기 일제시대 새우 염포상, 막걸리 주조장이 있었으며 등 넘어 떨어져 있다하여 외막골이라 부름.

큰골(□□)[골]

마파지 등 넘어 농토가 많은 골짜기.

붉은독[너설]

대동마을 서쪽 해안에 있는 너설. 붉은돌로 형성되어 있음.

개름길(개렴길)[길]

신흥마을에서 화산마을로 가는 도로 지름길이 변하여 기름 또는 개렴길로 변하였음.

새지끝[곶]

송여자 가까운 동편 쪽으로 정확한 유래는 없지만 옛날에 송아지를 쇠아지라 불렀는데 그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됨.

할박끝[곶]

송여자 선착장 입구를 말하며 여름이면 할아버지, 할머니가 바다에 나간 배가 오기를 기다렸던 곳이라 함.

벗등[등]

마을 서쪽바다에 있는 등. 경사지가 아닌 평지의 등이라는 지명으로 지금도 사람들은 이곳을 벗등이라 부르고 있다.

동뫼[등]

대여자도 중앙 질고지 동편의 고지대로 해안이 절벽을 이루고 있어 산 또는 동산같은 모형으로 동쪽의 산이란 뜻으로 불림.

질고지[목]

대동마을과 마파지마을 사이 길목으로 이 삼거리는 부락간 통행이 많고 특히 일제 때 일본사람이 새우 염포상을 했다고 하며, 밤에 보행하기가 무섭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함.

활꼬발[모래톱]

대동마을 앞 모래사장이 활처럼 둥글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여 부르고 있음.

각시바위[바위]

대동마을 북쪽 붉은 돌 옆의 바위로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맹인 시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하여 매일 바닷가에서 고동을 잡다가 이곳에서 풍랑을 만나 파도에 휩쓸려 죽었다하여 이 바위를 각시바위라고 부름.

탕전바위[바위]

매물섬 건너편 질고지 옆 바닷가에 노인들이 쓰는 탕건과 같이 생긴 바위를 가리켜 말함

매물섬 건너편 달고지 앞 바닷가에 조간들이 쓰는 장간과 같이 장간 바위를 가리켜 말함.

대여자도[섬]

여자만에 길게 남북으로 형성된 섬으로 마파지마을과 대동마을을 두고 제일 크다하여 부름.

소여자도[섬]

대여자도와 나란히 위치한 섬으로 작은 여자도라 지칭.

죽도(대강죽도, 대섬)[섬]

여자도에서 서남쪽 1km 지점의 고흥군 경계선과 위치한 섬으로 대가 자생하고 있다하여 대섬으로 부르고 있으며, 용어상 죽도라 부름. 주변 바다에는 고막 양식장이 많음.

매물섬[섬]

마파지 서남쪽에 있는 섬으로 식물이 귀하고 땅이 메말라 소나무 등 식물이 성장할 수 없다 하여 부름.

목섬[섬]

송여자도로 만조시에는 건너갈 수 없는 바다목을 두고 있는 섬으로 작은섬에 소나무가 성장하고 있다하여 부름.

동도(둥글도)[섬]

송여자도 남쪽에 있는 섬. 섬 형태가 동그랗다 하여 동글섬이라 부르고 있으며 행정지역상 동쪽의 섬으로 동도로 지칭되었고 섬 주변에 낚시터가 많음.

납계도(납닭도)[섬]

여자도의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달처럼 생겼다하여 납닭도로 부르다가 한자로 납계도로 붙여 부르고 1가구가 살다 지금은 거주치 않음.

간서(샛여간도)[여]

대여자도와 소여자도 사이에 있다하여 간서라 부르고 있으며, 간조시에만 그 모습을 볼 수 있음.

검등여[여]

마파지 동북쪽 돌섬에 있는 여. 검은 색깔의 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위에 낚시터가 있음.

애기남태[터]

마파지 서쪽 바닷가에 우물이 있는데 옛날 자손이 귀한 어느 집안의 며느리가 잉태를 하여 이 우물에서 정화수를 길어와서 공을 드리니 옥동자를 낳았다하여 애기남터라 불렀으나 그 후 애기남태라 부르고 있음.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